

국내 뷰티전공 유학생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김남산
건양대학교 의료뷰티학과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Satisfaction Survey of foreign students majoring Korean Beauty

Nam-San Kim

Dept. of Medical Beauty,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서울, 충청, 호남 지역 소재 대학의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출신국은 중국(77.7%)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중 50.5%는 한국뷰티기술의 우수성을 배우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40.3%가 자국 내 취업을 희망하였다. 교육과정 및 실무 강의 만족도, 실습 장비 및 기자재의 활용도, 지도교수와의 상담률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국과 외국의 뷰티기술을 접목한 교과목 개발, 멘토 멘티 프로그램 확대·지원을 위한 활동비, 장학금지원 제도의 확충, 지도교수와의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역 거점 토탈뷰티센터를 구축하여 현장실무 및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뷰티전공 유학생, 국적, 유학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취업

Abstract The study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and satisfaction level of 224 students studying in beauty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Seoul, Chungcheong and Honam regions. As a result, China (77.7 percent) had the largest number of countries subject to the survey. 50.5 percent of the respondents chose to study abroad to learn the excellence of Korean beauty technology, and 40.3 percent said they would like to work in their own country after gradua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education courses and working classes, the higher the use of practical equipment, the counseling rate with the academic advisor, an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university life was. As a result of this, for students we should develop a curriculum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in university life, support the mentor mentee program, and expand the scholarship support system.

Key Words : Beauty major international students, Nationality, Motiv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Employment

1. 서론

세계는 지식정보 사회로 다양화 되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한다. 예비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예로부터 대학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지성과 양심의 상징으로 대표되면서 사회로부터 분

리된 고고한 상아탑으로 존재해왔다 [1]. 하지만 범세계적으로 대학 평준화가 되어 대학 입학과 졸업에 대한 변별력이 감소하였으며,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을 존폐위기로 내몰았다. 이에 돌파구로 찾은 것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이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2017년 기준 123,858명으로 2007년 49,270명보다 2.5%가 증가하였으

*Corresponding Author : Nam-San Kim (namsan0104@gmail.com)

Received April 23,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June 4, 2018
Published June 28, 2018

며, 국가별로는 중국 66,184명(55.1%), 베트남 14,614명(11.8%), 일본 3,828명(3.1%), 몽골 5,384명(4.3%) 순이다[2]. 세계 우수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특히 중국은 자국내 '두뇌유출'에서 '두뇌유입'의 전환을 위해 중국유학 계획 프로젝트를 제정하였다. 중국 내 유학생을 2020년까지 50만 명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 및 조건부 중국어 능력시험 면제 등 입학 규정 완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4]. 일본도 2020년 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고자 유학비자 만료 후에는 자국 취업을 장려하고 있으며[5], 호주 또한 백호주의와 이민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유학수료 코스에 따라 비자(Post-Study Work Visa)를 연장해 주고 있다. 우리 정부도 Study Korea Project 2020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유학생을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2]. 따라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도 평가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에 우수 외국인의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을 다양화 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 대학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조혁수(2009)[6]·하호정(2012)[7]·유영달(2015)[8]·옹구엔 띠란(2017)[9]·윤지원(2017)[10]등의 유학생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 박혜숙(2012)[11]·신안치(2016)[12]등의 한국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비교 연구, 신영지(2012)[13]·른령파차리(2015)[14]등의 한국에 숙달정도에 따른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가 있다.

전공별 유학생 비율은 2007년 기준 인문사회(18,322명)·공학(9,225명)·자연과학(2,642명)·예체능(1,867명)·기타(17,214명) 순이었다. 이 것이 2017년에는 인문사회(46,637명)·공학(11,575명)·자연과학(5,313명)·예체능(6,794명)·의약계(713명)·기타(51,826명)(2007)[18]순으로 변화하였으며, 예체능 계열은 지난 10년 동안 유학생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유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관련된 만족도 연구에는 임상현(2014)[15]의 환대산업(호텔·외식·관광포함)관련 학과, 김동기(2017)[16]의 골프전공, 탄다린(2017)[17]의 한국어 전공 등으로 선택 전공의 범위가 일정 전공에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뷰티관광객이 지난 10년

내 3배로 증가했고[18], K-beauty 확산으로 뷰티전공을 선택하는 유학생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관련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충청, 호남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현황과 이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여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유학생 유치 비율을 높이고, 대상국을 확대함으로써 K-Beauty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첫째, 국내 뷰티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국내 뷰티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다.

셋째, 국내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 방안을 도출한다.

2.2 연구방법

2.2.1 문헌조사

국내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에는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외국인 대학생활 만족도 관련 논문을 참고하였다. 각 자료에서 대학생활 만족도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교차분석하여 공통 내용을 설문 문항 작성에 활용하였다.

2.2.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서울, 충청, 호남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뷰티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한 달간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 현황 10문항(나이, 국적, 유학동기, 한국어능력 등), 대학생활 만족도 20문항(교육과정, 교수 학습, 실습 장비 및 기자재의 활용, 대인관계 등), 진로 계획 현황 10문항(취업국가, 취업분야 등)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한 대학생활 만족 정도를 자기기입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배부한 224부의 설문 중 결측값이 포함된 18부를 제외하고, 206부를 조사

에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SPSS v.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일반현황

3.1.1 나이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20세~25세가 66.0%(136명)로 가장 많았으며 Table 1, 이는 국내 대학생의 평균 재학연령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35세이상의 연령도 5.3%로 만학의 유학생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The age range of foreign students

Age	N(people)	P(%)
18 ~ 20	15	7.3
20 ~ 25	136	66.0
25 ~ 30	34	16.5
30 ~ 35	10	4.9
35 +	11	5.3
Total	206	100.0

3.1.2 국적

본 연구의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 국적은 Table 2에서와 같이 중국 77.7%, 몽골 9.2%, 베트남과 미얀마가 각각 5.3% 순이었다. 교육부(2017)[19]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유학생의 국적 분포는 1위가 중국, 2위 베트남, 3위 일본, 4위 몽골 순으로 보고 되었다.

교육부 조사결과와 달리 국내 몽골 지역 출신의 유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몽골 내 K-Beauty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및 한국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사료된다. 강탈가 오란채책(2016)[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유학생 수출이 2007년 1,309명에서 2017년 5,384명[21]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몽골 내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155만 달러에서 159만 달러로 46.7%가 증가하였다. 몽골 내 한국 화장품 및 한국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향후 몽골 지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비율이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한국과의 수교 및 문호개방으로 중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성화 되고, 이후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되었다[6].

중국인 유학생의 자국 내 출신 지역은 동북지역(헤이룽, 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이 28.2%, 화동지역(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저장성, 장시성, 푸젠성)이 24.8%로 나타났다. 중국동북지역과 화동지역출신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뷰티관련 학과에 많은 분포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내 K-Beauty에 대한 인식이 높고, 한류 열풍이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Table 2. Nationality of foreign students

Nation	N(people)	P(%)
China	160	77.7
-Zhongnam diqu	58	28.2
-Huadong diqu	51	24.8
-Jungnam	18	8.7
-Huabei diqu	15	7.3
-Xinan diqu	13	6.3
-Xibei diqu	7	3.4
Mongolia	19	9.2
vietnam	11	5.3
Mianma	11	5.3
etc.	5	2.4
Total	206	100.0

3.1.3 유학 선택 동기

국내 뷰티관련 학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뷰티기술의 우수성이 50.5%으로 Table 3과 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국적이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인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는 한국 뷰티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구권 유학생의 부재는 안타까운일이며 서구권 국가들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국적 홍보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다행히 K-Beauty 화장품에 대한 제품력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미국에서도 인지도가 상승 중이며, 2015년 한국 화장품 대미 수출규모는 2억 1,751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5% 증가하였다[22]. 따라서 뷰티 기술 및 제품력을 강제로 외국인 유학생을 다변화하여 세계적으로 뷰티전공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Table 3. Reason for choosing studying abroad

Reason	N(people)	P(%)
The excellence of beauty technology	104	50.5
Korean Wave effects	40	19.4
Employment association	31	15.0
Geographical assessibility	14	6.8
Low tuition	8	3.9
etc.	9	4.4
Total	206	100.0

3.1.4 한국어 능력

뷰티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자격취득 급수를 조사 하였다. 한국어능력 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23], 급수가 높을수록 한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며,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을 39.8%로 Table 4 와 같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3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80.1%였다. 3급 자격[23] 이상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80.1%의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 대학 이상에서 학업 수행이 가능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은 취득[24]해야 전체적인 교육 서비스 만족도와 취업계획 및 대학생활에서의 실질적인 적응이 유리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40.3%만이 4급 자격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학생들은 원활한 학업 수행을 위하여 한국어 능력향상이 요구된다.

Table 4. TOPIK Level

TOPIK Level	N(people)	P(%)
Beginner 1	10	4.9
Beginner 2	31	15.0
Intermediate 3	82	39.8
Intermediate 4	48	23.3
Advance 5	26	12.6
Advance 6	9	4.4
Total	206	100.0

3.2 대학생활 만족도

3.2.1 교육과정 만족도

전공과목 및 교양 교과목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Pearson 상관계수 값이 0.540으로 뷰티관련 학과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요인간의 교차분석 결과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교양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P < 0.0001) 이는 정희영(2010)[25]의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연구에서 교과만족은 전공교과목의 편성과 교과내용 및 교과목 간의 연계성에 따라 전공만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5.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ultural subjects

Subject		Major subject	Cultural subject
Major subject	Pearson Correlation	1	.540**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
Cultural subject	Pearson Correlation	.540**	1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	

** P < 0.0001

3.2.2 교수 학습 만족도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이 선호하는 교수학습법은 실무 강의(52.4%)가 가장 높았다. 이는 유학생들이 “뷰티 기술의 우수성 Table 3’을 한국 유학 선택의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때문에 유학생들은 이론 강의 보다는 뷰티관련 실무 강의, 현장실습 센터에서의 산학 연계형 실무교육, 교외 현장실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 뷰티관련 학과로의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뷰티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뷰티관련 실무 강의 구성과 현장실습을 위한 교내실습센터, 실무환경구축, 실무를 위한 산업체연계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6. The desired education subject in beauty related majors

Desired Education	N(People)	P(%)
Beauty technique	108	52.4
A field trip	48	23.3
Beauty Theory	27	13.1
Field practice in campus	23	11.2
Total	206	100.0

3.2.3 실습 장비 및 기자재 활용 만족도

실습 장비 및 기자재의 충분한 사용과 교육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 Pearson 상관계수 값이 0.804로 실습 장비 및 기자재를 충분히 사용한 교육을 받으면 교육만족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요인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실습 장비 및 기자재의 충분한 사용과 교육만족도는 서로 연관관계가 높았다. Table 7, 이는 노혜린(2006)[26]의 연구에서 실습 기자재의 충분한 사용이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다양한 기자재 사용을 원한다는 유학생의 바람과 동일한 결과이다.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습 장비 및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 기술을 현장에 즉시 대입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practical equipment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Category		Diversity of practical equipments	Enough uses of practical equipments
Diversity of practical equipments	Pearson Correlation	1	.804**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
Enough uses of practical equipments	Pearson Correlation	.804**	1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	

** P < 0.0001

3.2.4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중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2가지로 조사되었는데, 첫째 지도교수와의 상담, 둘째 한

국인 튜터와의 활동이었다. 이들 변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와와의 Pearson 상관계수 값은 각각 0.465, 0.352로 지도교수와의 원활한 상담이 한국인 튜터보다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전재은(2012)[27], 김선영(2015)[28], 윤명숙(2013)[29]의 연구에서 지도교수 및 한국인 튜터(학생)와의 교류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도교수와 의 심도 있고 현실적인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며, 튜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공 및 교양 관련 다양한 소통·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Table 8. Colleg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lation with Koreans

Relation		Intention to recommend the major	Counseling with a guidance professor	Korean tutors
Intention to recommend the major	Pearson Correlation	1	.465**	.352**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	.000
Counseling with a guidance professor	Pearson Correlation	.465**	1	.515**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		.000
Korean tutors	Pearson Correlation	.352**	.515**	1
	Significance Probability (both sides)	.000	.000	

** P < 0.0001

3.3 진로 계획 현황

3.3.1 원하는 취업 분야

국내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들은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교육 강사, 화장품 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특히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트를 원하는 대상자의 수가 55.8% Table 9에 달하는 것은 테크니션 위주의 취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대학들의 (2018)[30] 뷰티관련 학과에서 진행되는 진로 체험 캠프에서와 같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

공분야에 대한 이해와 진로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2 진로 계획

졸업 후 유학생들의 40.3%가 본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였으며 한국 내 취업은 19.9%, 자국 내 한국기업으로의 취업은 응답자의 17.0%가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Table 10 유학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여러 대학들에서는 유학생 본국으로의 취업을 위해 학기 중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학부 해외연수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국민대학교(2017)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 상해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학부해외연수 장학금을 지원하고[31],한양대학교(2018)는 성동구청과 합작하여 성동구 소재의 중견 기업 중 해외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기관 혹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실습기관에 우수한 유학생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2].

이와 같이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부합하여 국내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현장실습 프로그램, 학부 해외연수 등의 운영은 지속적으로 논의·확대 되어야 한다.

Table 10. Career plans after graduate

Career Plan	N(People)	P(%)
Employment in one's own country	83	40.3
Employment in Korea	41	19.9
The employment of Korean companies in one's own country	35	17.0
go to a school	24	11.7
Studying abroad	19	9.2
etc.	4	1.9
Total	206	100.0

4. 결론 및 제언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으로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룩하였으며 이를 배우고자 하는 해외 뷰티션들의 방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내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의 현황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뷰티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평균 연령은 20세 이상 25세 미만이었으며, 출신국은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일본 순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지역이었다. 유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뷰티기술의 우수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들의 국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국적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국내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체계적 구성, 실무 강의 및 실습 장비와 기자재의 충분한 사용, 지도교수와의 원활한 상담, 한국인 튜터 제도가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국내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의 유치 비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관련된 요소들을 활용해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졸업 후 뷰티학과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취업 분야는 테크니션(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이며 자국 내 취업을 가장 많이 원하였다(40.3%, 83명). 이는 한국의 유학 계기가 뷰티 기술의 우수성이라고 답한 응답과 연계하였을 때 국내 뷰티 기술이 유학생들의 본국에서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뷰티관련 학과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뷰티학과 유학생들의 국적별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뷰티기술을 해외 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과목 개발 및 뷰티트렌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비, 장학금지원의 제정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도교수와의 심도 있고 현실적인 상담을 통해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뷰티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지역 거점 토탈뷰티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대학 단위의 센터 운영보다는 각 뷰티전공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한 유학생 공동강좌 개설로 현장형 실무 교육, 인턴십,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뷰티학과 유학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뷰티관련 학과의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향후 유학생들의 안전한 유학 생

활을 위한 비자, 취업연계 등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방안 마련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유학생의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국적 홍보·유치방안 마련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M. J. Park. (2008). A New Approach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Competence-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 26(4), 1-25
- [2]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2017)
- [3] H. S. Kim. (2016). Recruiting International Students Strategies for Enhanc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Education research* 39(), 21-42
- [4] H. N. Kim. H. S. Woo & S. H. Lee. (2016). A Comparative Study on Korea-Chinese-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Attraction Policy.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7(4), 311-337
- [5] T. Tabuchi. (2012). High skilled human resources acceptance policy in Japan.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39, 1-13
- [6] H. S. Cho & K. T. Jaen.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Living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n Universitie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0(3), 193-223
- [7] H. J. HA. (2012).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satisfaction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abroad. A master's thesis
- [8] Y. D. Yoo.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University of Shilla. 35, 231-280
- [9] T. L. Nguyen. (2017). A study on the adaption and satisfaction survey of Vietnamese students' University life in Korea. focused on the Vietnamese student in Gwangju·Jeonnam region.
- [10] J. W. Yoon. (2017). A Study on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 The Case of Chinese Foreign Student. *YeungNam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32, 29-56
- [11] H. S. Park. (2010). Comparis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3), 1-27
- [12] A. Q. Shen. (2016). The effects of instructional design factors of student engagement of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Chung-Ang University
- [13] A. J. Shin. (2012). Acculturation Process and Korean Literature Education - A case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9(1), 101-128
- [14] R. Patcharee, J. Y. Lee. (2015). The Effects of Thai Student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Level, SNS Use and Self-Efficacy on their Satisfaction with College Education. *Konkuk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35(0), 79-97
- [15] S. H. Lim & Q. L. Dan. (2014). A Study of Hospitality Industry Students' Major Selection Attributes and Major Satisfaction: Focusing on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MICE & TOURISM RESEARCH*. 36(1), 205-229
- [16] D. G. Kim. (2017). A Qualitative Case on Lifetime Experiences of Chinese Student Studying in Korea Majoring Golf. *Korea Sport Society*. 15(4), 335-347
- [17] T. Lim. (2017). A Study on the Motivation for Selection of Korean Language Major by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about their Maj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7), 459-465
- [18] VisitKorea, <http://kto.visitkorea.or.kr/kor.kto>
- [19]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eng.kedi.re.kr/khome/eng/about/welcome.do#>
- [20] G. Urantsetseg & H. K. Yu. (2016). A Study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Cosmetic Brands in Mongolia.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4(4)
- [21] <http://www.customs.gov.mn/>
- [22] KOTRA, 2016, K-Beauty diffusion success keywords in the United States.
- [23]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http://www.niied.go.kr/index.do>
- [24] S. Y. Chang, T. H. Yoon.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Korean Language Ability, Future Plan, Selection Factor of the University, Satisfaction of Education Service between the Foreign Students from International Base Center and General Foreign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 27(3), 329-347
- [25] H. Y. Jeong. (2010).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 [26] H. R. Roh, J. H. Cho, J. H. Kim, J. S. Cho, J. Y. Won, S. U. Woo, & S. J. Cho. (2006). Effect of Practice based Program for Procedural Skills. *Korean Journal of Medical*. 18(2),

- [27] J. E. Jang, N. Y. Jang. (2012). Nihao? Chinese students' relationships with Korea students: From Chinese students' experience and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8(1), 303-326
- [28] S. Y. Kim. (2015). A Study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ship Experience. *DBpia* 21(2), 107-135
- [29] M. S. Yun & N. H. Kim. (2013). Effects of Acculturative and Life Stress,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21-47
- [30] SeoKyeong University
<https://www.skuniv.ac.kr/128282>
- [31] Kookmin University
<https://auto.kookmin.ac.kr/impartation/notice/949>
- [32]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https://www.dic.hanyang.ac.kr/>

김 남 산(Kim, Nam San)

[정회원]



- 2017년 8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겸임 교수
- 관심분야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피부, 네일
- E-Mail : namsan0104@gmail.com